

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료계 중지 모아라”

의대 학장 350명 증원 제시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항” 증원 규모 2000명 유지 방침

대통령실은 28일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 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임장이 각각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대학에 실용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각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다”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을 일단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

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은 지역 균형과 교육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총복을 예로 들었다.

총복 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신생아 사망률·모성 사망 비율도 전국 1위이고, 치료가능사망률도 전국 1위 라면서 “그런데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임상 경험을 가진 의과학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굉장한 한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사 근무 시간 감소로 의료 공급량도 줄고 있다면서 “의사 자체도 고령화하고 있다. 인구를 추계해보면 2035년 70대 의사 비중이 2022년 6.8%에서 20%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 고려하면 수급 문제에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날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던 생각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 행위의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직역 간의 견도 들어보아야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내놓겠다는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도 ‘심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임장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공천, ‘험지’는 3040 신인·‘텃밭’은 50이상 현역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30~40대 청년과 여성 등이 여전히 소수에 머무르면서 기득권 정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텃밭’에서는 대부분 50대 이상 남성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은 상황이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까지 확정된 공천 후보자 132명 가운데 30대는 3명, 40대는 15명이 고 20대는 없다. 비율로 따지면 30~40대 청년 후보는 전체 공천 후보자의 14% 수준이다.

청년 후보들의 지역구는 대부분 ‘험지’ 또는 ‘적전지’다. 서울 8명, 경기 5명, 광주 1명, 세종 1명 등 전체의 83%인 15명이 배치됐다. 배정된 의원(서울 송파구)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경기 용인구)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현역이 없는 열세 지역이다.

나머지 청년 후보 3명은 고령·성주·칠곡(정희용 의원), 해운대갑(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경산(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영남권에 배치됐다.

여성 후보는 132명 중 12명으로 약 9%에 불과하다. 이들 12명 중 5명(42%)은 전·현직 의원이다.

정치 신인들도 대부분 험지로 몰렸다. 당이 영입한 인물들의 지역구는 박은식(광주 동남구), 김효은(경기 오산), 전상범(서울 강북구), 이상규(서울 성북구), 호준석(서울 구로구), 이수정(경기 수원시) 등 야당 강세 지역이 대부분이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권 ‘양지’는 현재까지 26명의 공천이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23명(약 88%)이 50대 이상이다.

영남권 공천 확정자 26명 중 현역 의원은 20명이다. 윤재옥·박대홍·윤영석·김도읍(3선), 강기운

·이만희·추경호·윤한홍·정점식(재선), 권명호·김미애·정동만·강민국·서일준·박수영·최형두(초선) 등이다.

수도권에 비해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만하다’고 평가받는 강원·충청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원 지역 공천 확정자 5명 중 4명(4선 권성동, 재선 이철규, 초선 유상범·박정하)이 50대 이상 현역이다.

충청권 공천 확정자 16명 중 15명도 50대 이상이다. 정우택·정진석·이상민(5선), 박덕흠·이종배(3선), 성일중(재선), 엄태영·장동혁·윤창현(초선) 등 현역이 9명으로 56%를 차지했다.

당내에선 아직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이나 현재 검토 중인 국민추천제를 과감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국힘, 김기현·주호영 경선 승리…김은혜·권영진 본선행

국민의힘의 4·10 총선 후보 경선 결과 울산 남구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의원을 꺾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울산 남구구는 4년 만의 ‘리턴 매치’로 주목받았던 지역구로, 김 전 대표는 본선 진출을 확정지

며 5선을 노리게 됐다.

대구 수성갑 현역인 주호영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 이번 총선에서 6선에 도전하게 됐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경기 분당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쥐게 됐다. /연합뉴스

대구 달서병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인 김용환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했다.

부산 연제에선 김희정 전 의원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이현승(부산 부산진구), 송언석(경북 김천), 김정재(경북 포항북구), 김승수(대구 북구)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민주, ‘쌍특검법’ 재표결 안 한다고 통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야는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내일 쌍특검 표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중 시작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구 확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또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나 한 것 아니냐”라며 “지금 (대통령이) 재요구권

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확정 협상을 물밑에서 진행해 왔으나, 구체적인 협상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확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지금 전북이 1석 감소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계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민주당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테린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부정관청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린인드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